우주기술 전문인력 양성 나선다

전북대, 이종 위성군 감시정찰 기술 특화 연구센터사업

메쉬구조 멀티스케일 모델링 · 전개해석 과제 각각 선정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국방과학진흥연구소의 우주 기술개발 인력양성사업 선정을 통해 우주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에 나서기로 했다.

15일 전북대에 따르면 국방과학진흥연구소의 우주기술개발 인력양성사업인 '이종 위성군 감시정찰 기술 특화 연구센터 사업'과 국방과학연구소 민군협력진흥원 '메쉬구조의 멀티스케일 모델링 및 전개해석'과제에 각각 선정됐다.

이 사업에 전북대를 비롯해 한국과학기술원, 서울대, 고려대 등 13개 대학과 5개 기업이 참여한다. 2028년까지 221억원의 정부 재원이 투입돼 우주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한국과학기술원이 사업 전체를 주관하고, 전북대는 임재혁 교수(기계공학과)가 총괄책임을 맡아 참여한다.

임 교수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위성구조팀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일하며 인공위성 본체 구조체 및 메커니즘 개발 업무를 직접 수행했다.

또 다목적 실용위성(3호, 3A호, 5호, 6호, 7호)과 차세대 중형위성(1호, 2호), 정지궤도 복합위성(2A호, 2B호), 한국형 달착륙선 시험모델의 착륙장치 및 로버하차장치 개발에 참여한 우주전문가다.

이번 프로젝트의 목적은 New Space 패러다임의 추세인 위성의 소형화·네트워크화에 따라 우주 감시정찰 임무를 위한 (초)소형 이종 위성군의 설계와 운영 관련 기초기술을 연구하는데 있다.

이에 전북대는 '대량생산 (초)소형 위성체의 신속 개발 및 궤도 전개를 위한 기반 기술 연구'라는 주제로 New Space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초소형 위성을 대량으로 개발하고, 초소형 위성의 다중발사, 위성사출 메커니즘, 전개형 광학 및 레이더 탑재체 개발에도 참여한다.

이 사업을 통해 이종 위성군 기반 우주 감시정찰 시스템의 효과적인 개발을 위한 이종 위성군 시스템 최적 설계, 이종 위성군 협업 운용을 위한 자율 임무 계획과 편대 제어기술, 고신뢰 통합 통신망 구축, 위성체 대량생산 및 신속 궤도 전개기술, COTS 기반의 위성부품의 소형·경량화 기술 연구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특히 함께 선정된 '메쉬구조의 멀티스케일 모델링 및 전개해석' 과제와 관련해, 전북대가 지난해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우주기술개발 과제'와 '위성용 경량 전개형 안테나의 메쉬(직조 또는 편조) 제작 기술 개발'의 세부 과제로 2년간 3억 원의 정부 지원을 받아 관련 연구를 추진하고 있어 우수 산업 발전과 관련된 분야의 연구와 우수인재 양성에 더 큰 성과가 기대된다.

임재혁 총괄 책임교수는 "현재 10명의 석·박사과정 학생 선발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다"며 "세계 우주산업 강국을 위한 우주기술 개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우수인력을 양성하고, 민간 기술이전 등으로 국내 산업이 활성화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방위산업의 미래 · 지역의 역할'

전북대서 워크숍 개최… 방산인력 양성 마리 맞대

글로컬대학30 사업 유치 위해 대학-기업 상생 박차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글로컬대학 30 사업 유치를 위해 K-방위산업 등 지역 특화 산업 기반의 대학-기업 간 상생 클러스터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북대는 15일 '한국 방위산업의 미래와 전북대학교 및 지역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열었다.

이에 따르면 이날 워크숍에는 한화시스템, LIG넥스원, 현대로템, 한국화이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휴니드테크놀로지스 등 대기업과, 다산기공, 데크카본, 비나텍 등 10개 중소기업 등 모두 16개 기업이 참여해 방위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또한, 전 방위사업청장을 역임한 강은호 전북대 특임교수가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전략의 일환으로 전북대 방위산업학과 설립의 중요성에 대해 기조발제하고, 이형택 이노티움 대표가 사이버보안 침해 현황과 국가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이어 곽승환 gqt 코리아 대표는 '양자기술 현황 및 gqt KOREA의 미션'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전북대 산학협력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글로컬대학 30 사업 유치를 위해 K-방위산업 등 지역 특화 산업 기반의 대학-기업 간 상생 클러스터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전북대는 15일 '한국 방위산업의 미래와 전북대학교 및 지역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열었다.

특히 이날 워크숍을 통해 대학과 기업, 그리고 전북도는 추후 설립될 계약학과인 전북대 방위산업학과 설립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양오봉 총장은 "국내 방위산업 분야를 이끄는 기업들과의 긴밀한 연대와 협력을 통해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 시스템을 확립하게 됐다"며 "전북대 뿐만 아니라 지역과의 벽도 과감히 허물어 대학과 지역이 상생 발전하는 글로컬대학으로 담대하게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공립 온라인학교 신설 지원사업 최종 선정

도교육청, 교육부 특별교부금 20억원 등 투입

김제고 실습동에 들어서… 내년 3월 개교 목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023년 공립 온라인학교 신설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공립 온라인학교는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학생 맞춤형 고교교육의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한 것으로, 현 정부의 국정과제중 하나다.

이날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실과 교원 등을 갖추고 소속 학생 없이 시간제 수업을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로, 개별 고등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을 중심으로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수업을 제공해 학생들의 학점 이수를 지원한다.

이는 특정 교과 교원 미배치, 소인수 선택 등으로 학생의 과목 선택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과목 운영을 지원하고, 개별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신산업·신기술 분야 과목 개설 등을 통한 학생 과목 선택권 확대가 핵심이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단위학교의 제약을 넘어 지역이나 학교 여건에 관계없이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격차와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공립 온라인학교 공모에 적극 나섰다.

사업 선정에 따라 도교육청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20억원과 자체비를 투입해 (가칭)전북온라인학교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김제고등학교 실습동에 들어설 (가칭)전북온라인학교는 2024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한다. 교실·교무실·행정실 등 기본적인 학교 공간을 갖추고, 원활한 원격수업 운영을 위한 설비와 인프라도 갖출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수업을 진행하고, 오프라인 수업과 활동을 다양하게 결합하는 블렌디드 수업, 교과연계 체험활동 등을 운영한다.

서거석 교육감은 "공립 온라인학교 설립은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진로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특히 교육 도약지역·소규모 학교의 과목 운영을 지원해 고교학점제 기반을 조성하고, 나아가 지역의 교육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해 전북의 교육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도교육청, 학교장 대상 스마트칠판 보급 설명회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5~16일 이틀 간 창조나래(별관) 시청각실에서 도내 초·중·고 및 특수학교장을 대상으로 '스마트칠판 보급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학교 현장에 보급되는 스마트칠판 보급사업의 추진배경과 목적, 그리고 향후 추진 일정 등을 안내해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스마트칠판 보급에 따른 학교장들에게 사업 추진에 대한 협조를 구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이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초·중·고 및 특수학교 일반학급 3,105개 교실에 1,000만원씩 총 310억5,000만 원을 투입해 미래형 교실을 조성할 예정이다.

스마트칠판은 전통적인 칠판과 달리 컴퓨터와 디스플레이장치로 구성된 양방향 디지털 칠판으로, 교사의 판서 내용을 저장·공유할 수 있어 학생이 학습 내용을 언제든지 참조할 수 있다. 또 터치 기반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상호작용과 협동학습에도 최적화 돼 있다.

더불어 교실환경 측면에서도 분필이나 마커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교실 수업 도구로 각광을 받고 있다.

실제 지난 3월 인공지능(AI) 교육 선도학교 학생, 교원, 학부모 등 1,709명을 대상으로 '스마트칠판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학생 89.1%, 교직원 85.8%, 학부모 94.2%가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스마트칠판 보급 사업 예산을 6월중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배부해 학생용 스마트기기 보급에 맞춰 설치될 수 있도록 신속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하반기 학생 교육용 스마트기기와 스마트칠판 보급 사업이 완료되면, 학교 현장의 수업 모습이 획기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은성기자

반도체 소부장 혁신융합 인재 키운다

전북대, 교육부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사업' 참여대학 선정

4년동안 408억 지원받아… 연간 1000여명 우수 인재 양성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교육부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의 세부 분야인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이하 반도체 소부장)에 전북도, 성균관대 등과 컨소시엄으로 참여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성균관대가 주관을 맡고 전북대와 전라북도가 참여한다. 4년간 408억원을 지원받아 연간 1,000여명의 우수 인재를 양성한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전북대는 국가 핵심 전략산업인 반도체 산업의 소재, 부품, 장비 및 시스템반도체설계 분야 등에서 탄탄한 기반을 갖추게 됐다.

이를 통해 전북대는 반도체 기업과의 교육·취업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고, 대한민국이 반도체 분야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기반이 되는 반도체 전문 학·석·박사 인재 양성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전자공학부 주관으로 신소재공학부, 화학공학부, 물리학과, 반도체기술학과가 참여해 '패키징 및 테스트'를 특화하는 공동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온라인 통합교육 플랫폼 구축과 문제기반학습법(PBL), 기업 참여형 프로젝트를 도입하는 등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사업 소속 학생들은 전공에 관계없이 교과목 수준에 따라 소단위 전공(마이크로·나노디그리), 융합플랫폼(학생설계) 전공·부전공, 융합·연계 복수전공 교육과정을 마음껏 이수할 수 있어 시류에 맞는 융·복합 교육도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전북대는 지난해 선정된 학부생 대상 시스템반도체 설계 분야 '반도체전공트랙 사업, 2021년 선정된 석사과정 대상의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설계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과 연계해 학·석사 연계 과정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종열 책임교수는 "우리대학은 거점 국립대학으로서 국가 핵심 전략산업인 반도체 산업 교육을 더욱 강화할 것"라며 "반도체 기업과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는 등 인재양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부안 하서면 초교 3곳 통합학교 교명 선정

'하서초등학교' 확정

내년 3월 개교 예정

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장기선)은 2024학년도 3월 개교예정인 하서면 초학교등 3교(장신초, 백련초, 하서초) 통합학교(구 장신초부지) 교명을 하서초등학교'로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교명 선정은 교명 공모, 교명심의위원회 사전심의, 주민 선호도 조사를 거쳐 부안교육지원청 교명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결정됐다.

하서면민을 대상으로 지난 5월 11~일까지 주민 선호도 조사를 실시, 하서초등학교(67.7%), 잼버리초등학교(26.7%), 하련초등학교(1.2%) 순으로 나왔다.

이에 따르면 '하서'는 부안군 하서면 지역에 통합해 남게 되는 초등학교로서의 대표성과, 학교와 지역사회 간 역사, 문화, 특징에 대한 이해도 증가 그리고 정체성 유지 강화에 의미가 크다.

아울러, 후보로 선정된 하서초등학교는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조례 개정을 위한 전북도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장기선 교육장은 "이번 교명 선정을 위해 참여해 준 관내 학부모, 학생,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향후 원활한 학교 개교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장은성기자 ·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대 사범대학, 단기 해외교육봉사 운영대학 선정

겨울방학 4주동안 라오스 수파누봉대서 교육봉사 프로그램 운영

전주대학교 사범대학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주관하는 '2023년도 교원해외파견사업 단기 해외 교육봉사 운영대학'에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국립국제교육원은 국제화 교육역량을 갖춘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예비교원에게 공적 개발 원조(ODA) 대상 국가에서 해외 교육봉사 프로그램 운영 대학 공모를 진행, 이번에 전주대 사범대학이 선정됐다.

이에 전주대 사범대학은 앞으로 국립국제교육원으로부터 약 6,700만원을 지원받아 겨울방학 4주간 20명의 봉사단원이 라오스 수파누봉대학교에서 교육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박기범 학장은 "국립국제교육원 단기 해외 교육봉사를 통해 미래 교사인 우리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함으로써 글로벌 시각을 넓히고 학생들의 교육역량을 제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수능 학습법-대학별 지원 전략 두 마리 토끼 잡는다

도교육청, 내일 학습전략 · 도내 주요대학 설명회 동시 진행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오는 17일 창조나래(별관) 시청각실에서 수능 학습전략 및 전북지역 주요대학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효과적인 학습법을 안내하고, 더불어 도내 대학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대입 준비 방안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오전 10시~12시 30분 수능 학습법 중심으로 진행되고, 오후 1시부터 4시 30분까지는 전북지역 대학 입학전형 설명이 이뤄진다.

수능 학습법 설명회는 EBS 대표강사인 인천포스코고 장동준 교사가 강사로 참여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위한 수능 마무리 학습법과 성공적인 고교생활 마무리 전략에 대해 안내한다.

이어 전북지역 주요대학 설명회에는 군산대학교, 우석대학교, 원광대학교, 전주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전북대학교 등 도내 6개 대학이 참여한다. 이날 전년도 입시결과와 올해 입학전형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각 대학별로 입학사정관이 직접 참여해 대입전형을 설명하고,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창조나래(별관) 2층 회의실에서는 대학별 상담도 진행된다.

유효선 중등교육과장은 "우리 지역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진학하는 대학은 도내 대학"이라면서 "수도권과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수험생들이 원하는 대학과 학과에 진학할 수 있도록 양질의 진학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번 설명회를 영상으로 촬영, 전북교육청 유튜브 꿈사다리TV(https://www.youtube.com/@jedumovie)에 탑재할 예정이다.

/장은성기자